

제 2의 나이지리아, 리비아를 찾아서(대우건설)



목진훈 대우건설 해외영업본부 해외영업지원팀 대리

I. 들어가며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건설업체들은 해외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2009년말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Project, PJ) 수주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제 2의 중동건설 붐(Boom)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었다.

국내건설업체들에게 중동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동의 발주처를 만만히 보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중동의 발주처는 해외 유수의 건설업체와 수많은 PJ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건설업체와의 수행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나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고 계약체결 후 수행단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상대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동의 발주처를 상대할 만큼 국내건설업체의 역량을 개발/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을 제외한 미개척 시장을 향해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입찰경쟁이 심하고 수익창출이 어려운 중동 PJ보다 진입장벽은 높지만 현지화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해외사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직까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지만 현재는 회사직원 중 일부가 현지에서 추장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현지화(Localization)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1978년 현재까지 30여년간 약 50개 공사에 50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리비아 역시 1978년 처음 진출하여 약 200여개의 공사에 110억달러를 수주할 만큼 현지화에 성공하였으며 리비아 내 전문제가 해결될 경우 대우건설이 리비아 재건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성공사례를 통해 습득한 현지화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제 2의 나이지리아, 리비아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본인이 경험한 알제리 비료현장(Fertilizer PJ)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II. 알제리 비료현장 소개

1. 알제리 국가개요

알제리는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서 북부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남부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사막성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한 국가로서 사회주의 성향이 짙으며 원유 매장량이 세계 14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8위로 풍부한 부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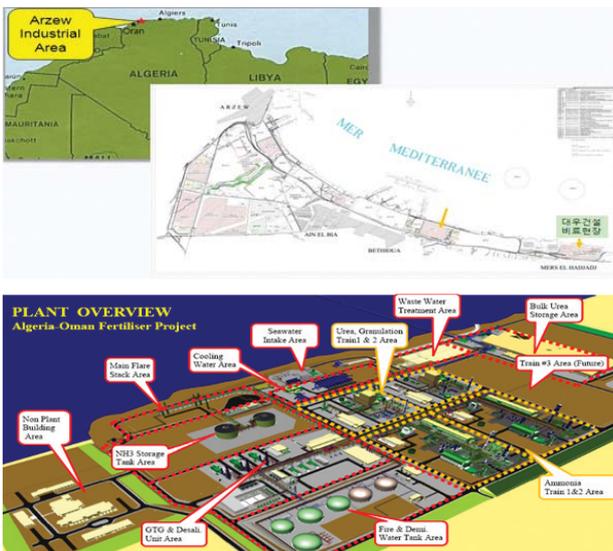
구분	내용
면적	238만 km ² (한반도의 약 10배, 세계 10위, 아프리카 1위, 48개 Wilaya)
인구	3,541만명 - 아랍계 81%, 베르베르계 19% (2012.07월 예상)
기후	북부 (지중해성, 7~30도), 남부 (대륙성 사막기후)
언어	공용어(아랍어), 상용어(불어, 베르베르어)
문화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에 사회주의, 서구(프랑스/스페인) 문화 가미
정치	대통령 중심 인민공화제, 상하 양원제
GDP	GDP 1,834억불, 1인당 GDP 5,001불 (2011년 IMF 추산)
외환보유고	1,859억불(2011.12.31 기준)
수출입	수출 785억불, 수입 498억불 (2011년 추산)
실업률	9.7% (2011년 추산, 세계 109위)

석유가스 산업이 전체의 46%를 차지할 만큼 주력산업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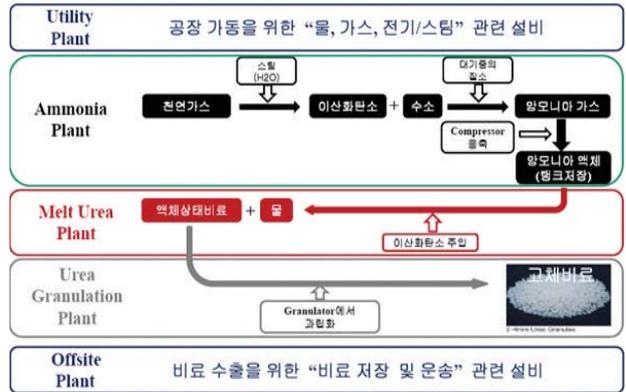
2. 공사개요

- 1) 공사명 Algeria-Oman Fertilizer Project (AOFPP)
- 2) 발주처 El-Djazairia El-Omania Lil Asmida Spa
Joint Venture of SBGH (오만, 51%) and Sonatrach (알제리, 49%)
- 3) Contractor Consortium : Daewoo E&C + Mitsubishi Heavy Industry Ltd.
- 4) 공사 내용
 1. Liquid Ammonia Plant : 2,000 MTPD x 2 Trains (Haldor Topsoe)
 2. Urea Melt Plant : 3,500 MTPD x 2 Trains (Shamprogetti)
 3. Granulated Urea Plant : 3,500 MTPD x 2 Trains (Uhde)
 4. Utilities & Offsite Facilities
- 5) 공사 금액 전체 US\$ 2,415,475,000
당사 US\$ 626,496,000 (당초) → US\$ 718,800,000 (준공시)
- 6) 공사 기간 2008. 12. 09 ~ 2012. 10. 29
- 7) 공정률 98.8% (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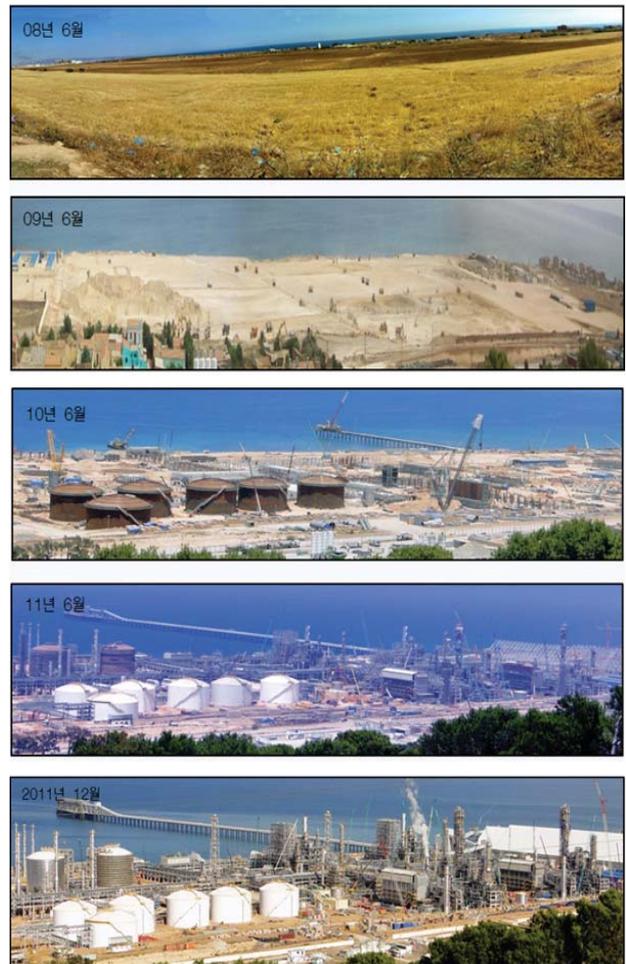
3. 위치도 및 조감도



4. 비료생산 공정개요



5. 공사진척 사진



6. 알제리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점

알제리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폐쇄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알제리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외환관리 : 출입국 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신고해야 할 정도로 외화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따라서, 알제리에서 외부로 외화를 송금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2) 현지인 고용문제 : 알제리 정부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알제리 현지인 고용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성향 때문인지 알제리 현지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3) 의사소통 문제 : 알제리는 영어가 아닌 아랍어와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4) 무전기 관리: 알제리 동부에서는 테러조직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무전기를 이용해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무전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30년간 우리에게 달콤한 High Return을 가져다 주리라 기대한다.

III. 맺음말

대우건설은 대우그룹 시절인 1986년 수도 알제에 힐튼 호텔을 건설하면서 알제리에 처녀 진출한 바 있다. 그 후로 한동안 사업 진행이 없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알제리에 다시 진출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진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제리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외환관리, 현지인 고용문제, 의사소통 문제, 무전기 관리 외에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리스크(Risk)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다른 경쟁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현지화에 성공한다면 나이지리아, 리비아와 같이 향후 20,